

“통일은 새로운 ‘코리안 드림’ ... 30조달러 해외투자 몰릴 것”

문헌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

“한국의 밝은 미래는 통일과 함께 올 것입니다. 통일은 잭팟(jackpot)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바탕으로 한 통일 비전을 통해 한국의 전통 가치와 문명 가치를 융합한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글로벌 평화·통일 운동가인 문헌진 글로벌피스재단(GPF) 세계의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될 한반도 관련 국제 포럼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 행사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풀너와 함께하는 글로벌 행사다. 문 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럼을 통해 자유통일 한국을 향한 코리안 드림을 미국 지도층에 알리고 민간 주도 통일 운동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해 전 세계적인 협력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포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광복 80주년 ‘코리안드림 1000만 통일실천대행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를 계획이다. 그는 “한국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축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선진 민주국가들의 경우 헌법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며,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민들이 뒷받침한다. 한국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너무나 당파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 역사를 전공했는데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의해 다수에 의한 폭정이 이뤄지는 걸 경계했다. 그리고 민주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시민들이 도덕적·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봐도 민주주의가 오히려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도덕적·윤리적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분열이 너무 심하게 국가 운영이 위협받고 법치주의가 위문되고 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같은 동맹들이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미래, 특히 경제적 미래를 전망하고 한국 국민이 다시



문헌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안 드림’과 통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2500만 인구 늘어 내수 활성화 민간 투자로 청년들 성공 기회

트럼프도 통일운동 호감 가질 것 美조야에 대북정책 대안 될 수도

올해 한·미서 광복 80주년 행사 1000만 통일실천대행진도 계획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미래가 어둡다. 첫 번째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인데, 미국이 지금 관세를 이용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인구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나이가 든 사람이 많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적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복지시스템을 접목했다. 여기에 정치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더러웠다. 네 번째로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은 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남북통일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성장 발전을 위한 모든 요소를 통일이 가져다주고, 모든 한국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성공하고 부를 누릴 기회가 통일을 통해 올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해외 동포를 빼도 2500만의 새로운 인구가 더해진다. ‘코리안 드림’을 바탕으로 통일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면 국내 내수시장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많은 해외 동포도 한국에 들어오고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인재나 자본적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 등 젊은 세대 중심으로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30년 전 독일 통일 과정의 잘못된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잘못된 예측이다. 통일은 잭팟이다. 통일비용은 대부분 개인 사유자본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 해외의 30조 달러(약 4경 원) 정도 되는 돈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국가가 세워진다면 (그런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돼) 중국 연안 지역의 고속 성장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핵 개발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 국가들과 대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일 국가가 생긴다면 서구와 동맹국들이 한국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은 후임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현대 국가와 공화국 건설이었다. 코리안 드림을 바탕으로 한 통일 비전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가치뿐 아니라 서양의 좋은 문명적 가치를 합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코리안 드림이 모든 한국인에게, 특히 젊은 층에 전해지는 것이 소망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현재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통일 비전이 이뤄진다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통일이 오랜 기간 많은 과정을 거쳐 이뤄질 거라는 전제는 틀렸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한 사람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그다음 날부터 통일을 위한 과정이 바로 시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와 미래를 제공해줄 수 있는 통일의 미래를 한국 사람들이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국들이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통일을 실천하는 단체들, 시민 풀뿌

리 통일운동 연합체를 만들었다. 한국이 당파적·지역적으로 분열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권도 국민의 통일 운동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때 시민 주도의 풀뿌리 운동을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독트린을 내놨다. 풀뿌리 통일운동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일본까지도 풀뿌리 시민운동을 통한 한국 통일을 지지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김일성부터 3대째 내려왔던 통일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체제 경쟁을 해왔는데 이 선언은 통일을 위한 경쟁에서 졌음을 시인한 것이다.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잃어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체 자유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들어가 만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은 근본적으로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서 미국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풀뿌리 시민 통일 운동에 대해 호감을 갖고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통일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바른 한국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싱크탱크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좁은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틀렸다고 보고 대안을 찾고 있다. 가장 핵심적 주제가 남북통일이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인 반면 한국에선 ‘물질적 풍요’인 것 같다. 1970년대 초반의 한국은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제도가 있었다. 통일 운동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다시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그러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김충남·이재희 기자

문 의장은...

‘세계평화 기여’ 통일국가 목표... 인도주의 사업 국제기반도 구축

글로벌피스재단(GPF) 창설자이자 세계의장인 문헌진 의장은 ‘코리안 드림’ 구상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국가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평화 운동가다. 그의 ‘코리안 드림’은 흥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통일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문 의장은 2012년 ‘통일을실천하

는사람들(AKU)’을 설립해 세계적인 민간 통일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AKU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지부를 두고 해외 동포와 연대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힘쓰는 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민간 조직으로 성장해 현재 10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소속돼 있다. 4대에 걸쳐 한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

해 노력한 집안 출신인 문 의장은 역사학자 케네스 T 잭슨 교수의 지도하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어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문을 열었던 선친 고(故) 문선명 총재를 도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세계적인 도주의 사업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

해 왔다. 지난 2001년에는 전 세계의 낙후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국제 비영리단체 ‘서비스포스(SFP)’를 설립했다. SFP는 남북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북한 입국이 허락된 최초의 자원봉사단체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

의지위를 획득했다. 문 의장은 평화를 실현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꼽는다. 이런 신념에 따라 그는 2009년 GPF를 설립했고 현재 세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GPF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자문단체이자 유엔 공보국 협력 NGO로

서 20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울라이츠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가난한 농촌 지역을 변화시켰다. △컬럼비아대 역사학 △하버드대 MBA △글로벌피스재단(2009) 창설자 겸 세계의장 △서비스포스(2001) 창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2012) 창설 △주요저서-코리안드림(통일 한반도의 비전)(2014년), 코리안드림 센테니얼 에디션(2020년) 이재희 기자

꿈에도, 가적이 있을까?

초록우산은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육, 예술, 학업 등의 분야에 재능을 펼쳐가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질문에, 현실이 답이 되지 않도록

초록우산

초록우산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 알아보기